

## 천천히 꾸준히, 그러나 진지하고 정확히 다음 발걸음을 옮기자 Let's have a Next Step Slowly & Steadily but Soberly & Exactly

최관영 / (주)일건씨앤씨건축사사무소  
by Choi Kwan-Young

요즘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당연한 경제상황이다. 장차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I.M.F.라는 긴 터널의 시작점에 있다고 하는데 그 터널을 빠져 나오는데 3년이 걸리느니, 5년은 걸리느니 또는 10년은 걸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희망이 없다는 비관론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건축수요임은 뻔한데, 이미 건축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언제쯤이면 다시 건축수요가 조금씩 생겨날지는 경제전망을 하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건축계의 지나친 호황으로 인하여 건축계에 종사하는 전문인의 수는 늘어날대로 늘어나 있는데 건축수요의 급감과 전망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한 건축시장에의 영향은 불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범위를 좁혀 우리의 건축설계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2천평정도의 어느 지방대학의 현상설계 공모에 130여 사무소가 응모했다고 하고 어느 지방의 문예회관의 현상설계에는 2백여 사무소가 응모했다는 등 이와 비슷한 예들이 많다고 들리며 그 응모자중 대개 1/3이 최종작품을 제출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제작비의 총계는 설계비의 몇 배가 된다고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라고 평하기 앞서 많은 설계사무소의 자멸을 걱정해야 함이 있을 것이다.

근년에 들어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학생들의 작품이 쇠도해온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다소 부정적 측면의 우려를 했어도 한편 순수한 건축적 열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아 왔다. 이와같이 최근의 현상설계 공모현황을 순수한 건축적 열정으로 볼 수 있다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치열한 생존경쟁이라는 아귀다툼의 현장이라 함이 적절하지 않을까?

게다가 제한공모요강의 내용이나, 채점방식에 소위 P.Q.심사를 가미한 제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는 또 다른 문제로 부가적으로 부각된다.

일정량의 먹이가 일정한 대상에게 크게 할애되고 나면 남은 먹이에 대해서는 더 치열한 경쟁률로 나타날 뿐이며, 또

P.Q.심사에 의한 평가는 'Pass or Fail'로 끝나야 함이 타당함에도 그 점수를 작품심사의 점수에 가산한다는 것은 건축을 창의적 결과물로 보기 보다는 단순한 시행능력만을 중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또한 불요한 에너지 낭비가 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같이 휘말려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조차 어려워 질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건축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결과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결과는 아니지 않았던가?

개체로서의 각 건축들의 질뿐만 아니라 그 집합체인 도시들의 속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 거리환경 그리고 생활환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연전 이태리에서 들은 얘기를 되씹어보고 싶다. 누구나 짐작이 가듯이 유럽의 다른 나라도 다소 그렇지만 특히 이태리라는 나라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는 드물게 있을 뿐 주로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Remodeling), 인테리어(Interior) 등의 일들이 있을 뿐인데 로마대학을 비롯하여 밀라노, 나폴리, 베니스 등의 대학의 건축과 졸업생이 수요에 비해서 상상 이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건축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졸업을 해도 건축설계를 본격적으로 업으로 하는 직업은 구하기도 어렵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건축을 지망하는 학생이 어떻게 많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건축을 문화적 가치를 가진 매력있는 학문 분야로 인식하고 지망할 뿐만 아니라 졸업후에도 생활수단은 다른 것으로 하고 건축일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가들끼리 임시로 모여 즐겁게 좋은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얘기이다.

이는 물론 다른 생업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생활을 견디면서 드문드문 생기는 일은 건축설계를 하겠노라는 친구들 또는 선배배들이 같이 모여 일을 했던 70년 전후의 상황에 비견될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할 상황이 혹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바람직스런 전망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맞이하여 정확한 방향감각없이 바쁘게만 뛰어온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심호흡을 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선정하고 다음 발자국을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다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 동안 질적 생산보다는 양적 생산에만 급급하여 건축의 진정한 가치는 소홀히되었고, 범람해온 서구로부터의 건축 이념들로 인하여 일정한 건축역사를 가진 우리는 혼미를 거듭해왔으며, 교과서나 고전은 멀리한 채, 머리와 가슴은 두고 입과 손으로만 하는 건축이 난무했고, 진지한 연구와 창의적 사고에 의한 행위보다는 모방과 답습으로 치우친 경향의 농후 내지는 외국건축설계의 단순한 상품적 수입의 양태로까지 발전했으며, 수준 낮은 연관 엔지니어(Engineer)로 부터의 권위없는 컨설팅(Consulting)에 의한 기술적 불신이 부가되었으며, 건축의 기본부터 차근히 습득해 해야 할 후학 육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어 왔으며, 총체적으로 건축은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되기 보다는 단순한 기술로 인식되게 하였으며 — 여러 가지 기발한(?) 제도들을 분석해 보면 — 결국 건축가의 전반적 위상은 오히려 추락되었다 하겠다.

바쁘게만 일해왔던 우리는, 이제 다시 자신을 리프랙팅(Reflecting)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함이 옳다고 하겠다.

창의적인 작업의 요체는 아이디어(Idea)이며, 아이디어 소스(Idea Source)는 고전(Classic)의 연구, 작품(Works)들의 분석, 진지한 연구(Study)와 많고 알찬 경험(Experience)으로 나온다고 한다.

프랙티스(Practice)는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한 번의 프랙티스에서도 철저함과 진지함을 함께 하는 최선을 다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여유있게 교과서를 다시 펴들고, 마스터(Master)들의 건축을 다시 읽고,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하며, 내일을 위하여 오늘, 후학들을 철저히 지도육성해야 하며, 건축주의 반 건축환경적 요구에 설득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종국에는 노(No)라고 할 수 있는 사명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건축이 종합예술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는 다소 적절치 않음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기술을 일부 포괄하는 문화적 매너페스트(Manifest)로서 이해되어야 함은 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정진하여야만 세계속의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적 상품이야 말로 영원히 경쟁력을 지닌다"는 이 시대의 세계적 석학 기소르망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치열한 세계 속의 경쟁에서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노력없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며, 우리들은 더욱 잘 모르는 분야이다.

우리는 우리들대로 우리의 바람직한 앞날을 위하여 10년, 20년, 몇 십년후의 바람직한 건축과 도시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임무를 가진자로서 이 시점에서 다음 발걸음을 천천히 꾸준히, 그러나 진지하고 정확히 옮겨가자.